

## 고령자의 동거형 주택계획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lanning of Cohabitating Housing for the Elderly

임만택 \*  
Lim, Mann-Taek

박경갑 \*\*  
Park, Kyung-Ga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ffective planning guidelines of elderly housing for the aged people living with their sons or daughter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problems of housing environments, two hundred and six old people in Gwangju city, aged over sixty and living with their sons and daughters, were interviewed individually and they provided the useful answers to the questions. The houses for three generations need to have the proper degree of privacy for each family member, by arranging rooms for their own independent living space while securing the sufficient common space. Therefore, independent and safe living environments are to be made for the elderly and the choice of various types be made according to their own demands. It is also necessary to guarantee the continuation of inhabitation by establishing health care systems and life support services.

Keyword : Planning Guidelines, Housing Environments, Three Generations, Various Types

#### I. 서 론

현대 사회에서도 가족은 여전히 인간의 삶을 조건짓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강력한 '가족주의'로 특징 지워지는 한국사회에서 와 같이 개인의 삶의 영역이 가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는, 원만하고 만족스러운 가족생활이 원활한 사회생활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활력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그러한 가족생활을 이루하는 것 자체가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

안전하고 안락한 주거를 보장받고자 하는 욕구는 건강의 욕구, 물질적 복리에 대한 욕구, 원만한 가족관계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노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 할 수 있다. 이는 주거와 주거환경이 인간의 생활공간을 구성하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삶에 직접적이면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이러한 주거 및 주거환경의 중요성은 노년기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즉 노년기에 적합한 주거공간 및 주거환경은 노년기의 다양한 부정적 변화들(예: 신체적 허약함의 증대)에서 오는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줌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

나이가 들에 따라 인간의 운동기능은 조금씩 저하되고, 사고방식도 조금씩 보수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체적 기능 변화를 가능한 한 급격히 떨어뜨리지 않고, 하강속도를 늦출 수 있는 고령자주택이 요구된다.

또한 고령자 주택은 개인측면에서 뿐 아니라 복지차원의 주택정책이나 주택산업 등 사회적 측면에서나, 정주지향에 따른 커뮤니티 형성 측면에서도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동거세대를 배려한 주택계획을 위하여 고령자의 동거 상황을 파악하여 동거형 주택계획의 지침 설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다.

#### II. 가족관계와 거주유형

##### 1. 가족관계

노년기의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개념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가족관계자의 존재이다. 노인에 대한 가족구성원들의 지지가 현재화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가족의 존재는 필요시 그 역할을 담당할 잠재적인 지지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설령 가족의 역할이나 기능이 미미하다 할지라도, 가족이 있다는 그 자체가 노인들에게는 삶을 풍요롭게 인식하는 기초가 되기도 한다.

둘째, 가족의 외형적<sup>1)</sup> 긴밀성이다. 이는 혼존하는 가

\*정회원,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정회원, 목포과학대학 건축과 교수

이 논문은 2000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족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접촉 등으로 나타나는데, 그 자체는 노인들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보여진다. 세대간 동거나 빈번한 접촉은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자녀들이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sup>2)</sup> 한편, 노인들의 욕구에 자녀들이 대응하는 과정과 무관하게 세대간의 동거나 빈번한 접촉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가족관계자의 존재유무와 유사한 맥락에서 잠재적 지원망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가족으로부터의 수혜이다. 즉, 노인이 경제적 지원과 같은 물질적 지원이나 신체적 부양·정서적 지원과 같은 비물질적 지원에 대한 욕구를 필요로 할 때, 가족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이다.

넷째, 가정에서의 역할이다. 노인들이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혜택을 제공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이다. 노인이 가족에게 물질적·도구적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는, 이러한 역할이 노인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sup>3)</sup> 반면, 정서적 지지의 제공에 있어서는 이러한 애매성이 훨씬 덜하다. 노인들은 자녀들의 상담자나 말벗이 되어 줌으로써 부모로서의 역할과 위치, 그리고 가족관계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가정에서의 역할을 구성하는 또 다른 핵심요소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노인의 역할이다. 노인이 이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노인의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다섯째, 가족간의 태도 및 가치의 일치를 들 수 있다. 이 영역은 특정한 태도나 가치, 그리고 가족생활에 관련된 행위들에 관해서 가족성원들간의 동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유사성이 존재하는지를 뜻하는데, 동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유사성이 많을수록 질 높은 가족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sup>4)</sup> 즉, 이러한 가족구성원간 태도 및 가치의 일치는 갈등의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가족관계의 질을 강화시킨다고도 볼 수 있다.

1) 여기서 '외형적'이라는 단어의 합의는 두 가지이다. 동거와 접촉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과정으로 발생하는지가 밝혀지지는 않지만 현상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정서적 친밀성(emotional closeness)과 구분하려는 의도가 들어 있다.

2) 세대간의 동거나 접촉이 반드시 노인들의 욕구와 필요에 대응한 결과라고만 보기는 힘들다. 성인자녀들의 필요(예: 어린 손자녀 양육, 가사의 분담, 경제적 부담의 분배)에 의해서도 세대간의 동거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자의 경우 보다는 전자의 경우에 의해 세대간 동거와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인 듯 하다.

3) 장성한 자녀에게 이러한 도움을 준다는 것은 노인들의 물질적 능력을 반영하고 자녀에 대한 지원제공자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게 해 준다고 볼 수 있는 한편, 자신들의 능력을 벗어나 자녀들의 필요에 끊임없이 얹여 있는 상황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자신의 가족관계에 대해 스스로 내린 주관적 평가와 판단이다. 예를 들어 노인이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살고 있고, 가족들로부터 물질적·정서적인 지지를 받으며, 의사 결정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노인이 자신의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면 가족관계의 질은 높다고 볼 수 없다.<sup>5)</sup>

## 2. 노부모의 부양과 거주형태

오늘날 고령자세대나 고령자가 혼자서 생활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녀나 자녀가족과의 동거율이 54.5%(1998년)<sup>6)</sup>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까지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기본적인 거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대하는 노년인구를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부모부양에 따른 안정성, 불안정성의 문제는 가족구조와 밀접히 관련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거주형태 내지 가족구조와 노부모부양과의 대응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도식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보자(표 1).

동거란 실질적으로 (단순히 주민 등록상의 형식이 아니라) 동일세대를 이루는 것이다. 또한 노부모부양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경제적 안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원), 신변보호(건강을 회복·유지하고 싶은 건강유지욕구와,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비용의 걱정없이 의료를 받고 싶은 보호의료욕구를 충족하는 것)과 정서적 지원(허물없는 대화 기회를 원하고, 가족의 인간관계 중에서 위로와 안정감을 얻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원) 등이 있다.<sup>7)</sup>

이와 같이 동거가 경제적 지원, 신변보호, 정서적 지

표 1. 거주형태별 노부모부양에 대한 기능과 역기능의 크기

부양 측면 거주 형태	기능			역기능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신변 보호	프라이버 시 보호	정서적 갈등
동 거	대	대	대	대	대
별 거	근거	대	대	중	중
	원거	대	중	소	소

출처 : 森岡清美·望月嵩(1987), 新しい家族・土會學, (改訂版), 培風館, p.125.

4) 예를 들어, 부부관계에서 부부가 여가생활에 대한 태도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질 높은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인자녀들이 그들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와 그들의 노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양육태도가 일치한다면, 이 또한 질 높은 세대관계를 형성하는 요소라고 보여진다.

5) 이가옥외, 노년기 삶의 질 : 개념 및 지표 - 4성, 2000년도 세 계노인의 날 기념 제6회 학술세미나, 성공회대학교.

6) 1998년사회통계조사보고서(1999), 통계청, p.13.

원에 대하여 가장 안정적인 반면, 프라이버시를 지킨다는 점과 정서적 갈등을 회피한다는 측면에서 결함을 지니고 있다. 근거는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에 대하여 실행의 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동거와 손색없는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신변보호에 대해서는 긴급시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원거가 되면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회피하여 정서적 갈등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적의 거주형태이지만 일상적 접촉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정서적 지원은 전화나 편지로 보충하더라도 근거에 못 미치고, 신변보호에 이르러서는 충분한 기능을 담당할 수 없다. 따라서 노부모부양으로서는 안정적이 되기 어렵다.

동거상황의 국제비교(1995년)를 보면 아시아권에서는 동거율이 높으나 서구권에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

한편, 19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 노인의 97.6%의 노인은 생존자녀를 1명 이상 두고 있으며, 평균 자녀 수는 4.3명(시지역 노인 4.0명, 군지역 노인 4.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60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에서 독신으로 생활하는 노인은 11.9%, 부부만으로 생활하는 노인은 29.1%로, 자녀와 따로 별거하여 생활하는 노인이 전체노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1.0%로 나타났다. 자녀별거노인의 비율은 1988년 24.7%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군지역에서는 자녀별거 노인이 54.0%(독신노인 15.0%, 부부노인 39.0%)로 절반 이상의 노인이 자녀와 따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8)</sup>

이러한 자녀별거노인의 증가현상은 전통적 '장남동거 노부모 부양'이 더 이상 보편적인 현상이 아님을 말

표 2. 고령자 가족과의 동거상황 국제비교(1995년)  
(단위 : %, 복수회답)

항 목	한국	일본	태국	미국	독일
배우자	53.3	69.8	53.3	46.1	50.4
기혼의 자녀(남성)	37.5	32.1	26.2	1.1	2.4
기혼의 자녀(여성)	3.6	9.6	36.1	2.5	2.3
미혼의 자녀	13.8	17.2	32.8	12.5	8.2
손 자	38.6	30.2	51.7	6.6	3.0
동거자 없음	13.7	8.0	4.7	40.0	38.7

출처 : 総務廳長官房高齢社會對策室(1995), 高齢者的生活と意識に關する國際比較調査

7) 森岡清美, 老親の扶養, 森岡清美・望月嵩(1987), 新しい家族社會學(改訂版), 培風館, p.124

8) 노인들이 별거자녀들과 만나는 비율은 '1개월~3개월 정도에 한 번'이 39.5%로, 노인의 자녀 접촉빈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주고 있으며, 부부중심의 가족생활을 선호하는 현 세대 젊은층의 가치관을 감안할 때,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의 3대 거주유형을 보면, 그들은 노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고용계층(셀러리맨)이고, 「가문」을 잇는다는 의식은 희박하고, 자기 개인의 생활을 존중하는 생활양식이 정착하고 있다. 일찍이 부모로부터 떨어져 가정을 설계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견해이지만, 주택가격의 앙등이나 택지의 원격화 등으로 새로이 독립하여 세대를 구성하는 조건은 곤란해지고 있다. 또한 출생률의 저하에 수반하여 장남·장녀시대라고 하게 된 것이나, 구미풍으로 노부모+자녀세대가 무미건조하게 분리하는 것에 대한 일본적인 정다운 가족관계의 개선, 여성의 사회진출로 가족이 가까이 거주하는 장점의 활용 등등 3대 거주가 선택되는 배경은 선호되어지고 있다.

노후에 바람직한 가족과의 교류방식에 대하여 6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각국별로 조사(1990년)한 결과를 보면 아시아권에서는 반 이상이 자녀나 손자와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서구권에서는 함께 생활하기보다는 가끔 만나 식사나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다(표 3).

### 3. 생활공간의 공동과 분리

풍부한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여러 연령층의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환경에서 어린이는 노인을 통하여 생활문화를 배우고, 인간의 약함이나 강함, 아름다움이나 추함을 알고, 죽음을 알게 된다.

3대주택을 계획할 때 동거형식으로 할 것인가, 이웃에 거주하는 인거(隣居)로 할 것인가, 또한 기본적으로는 별거에서 부분적으로 동거로 할 것인가가 고려된다. 완전한 동거는 고부와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결혼 당초부터의 동거가 아니라 도중에의 동거는 현대사회에서 의논을 충분히 하더라도 그 정도로는 응어리가 남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서로 조심

표 3. 각국별로 본 노후에 바람직한 가족과의 교류방식  
(1990년)  
(단위: %)

항 목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자녀나 손자와는 항상 함께 생활하는 것이 좋다	61.4	53.6	3.4	3.9	15.4
자녀나 손자와는 가끔 만나 식사나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	33.9	37.8	72.7	73.2	55.3
자녀나 손자와는 이따금 대화를 하는 정도가 좋다	3.2	6.0	21.1	20.4	26.4
자녀나 손자와는 전혀 만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좋다	1.0	0.9	0.4	1.8	1.6

출처: 総務廳長官房老人對策室(1990), 老人の生活と意識に關する國際比較調査

하면서 생활하는 것도 검토된다.

완전한 별거는 별동으로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불 가능하다. 2호 주택이면 공동주택의 규정에 적용되어 1호 주택과는 다른 법규 적용을 받는다. 1동 건축으로는 내부에 무엇인가의 연결을 만들어야 한다. 수프가 식지 않는 거리로 한다면 현관 등은 별도로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는 평면을 창출하는 것이다.

부지의 형상도 인거인가, 부분동거인가에 관련한다. 남북으로 세장(細長)된 부지에서는 부모와 자녀는 평면 형태에서 상하에 거주하여야 한다. 그 점에서 동서로 긴 부지에서는 같은 형태로 둘 나란히 배치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평면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상하에 거주할 때에는 상하층은 거의 같은 위치에 부엌이나 욕실과 같은 물 사용 공간을 배치한다. 좌우에 부모와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는 경계벽에 대하여 대칭적 형태로 하여 벽 가까이에 금배수관을 설비한다. 좌우에 배치한 경우는 대칭 배치가 되기 쉽다.

동거와 별거의 주거유형은 어디까지나 생활의 자립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교류가 유지될 수 있는 주거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의 자립에는 먼저 부엌과 식공간의 전용화가 포인트가 되고, 현관이 그 다음이다. 가족과의 교류를 위한 장으로서의 공용공간(거실)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고령자를 위한 전용공간으로서의 접객의 스페이스가 있으면 보다 활동적인 주생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 고령자를 위한 공간은 장래 휠체어 이용에도 용이하도록 여유 있는 스페이스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3대 거주의 형태는 부모와 자녀가족의 생활영역, 특히 부엌과 현관의 전용도에 착목하여 동거·분거·인거·근거·별거로 분류되는데(표 4), 성인이 된 독신자녀, 형제끼리의 거주, 부모·친족 등의 장기 체재, 3대 거주의 준비단계에서의 가족 사이의 프라이버시 확보 등 개개의 가정에서 보면 3대 거주에 준한 상황은 다양

표 4. 노인과 가족의 거주형태

	동 거	분 거	인 거	근 거	별 거
전용부엌	×	○	○	○	○
전용현관	×	×	○	○	○
거 리	같은 건물이나 같은 부지에 이웃한 곳	같은 건물	같은 건물이나 같은 부지에 이웃한 곳	약 10분이내	10분 이상
	가계와 식사가 별도				

출처 : 住宅團地環境設計ノート編集委員會(1996), ハウシングキーワード200選, 日本住宅協會, p.166.

표 5. 생활형별 주택유형의 대응

주 택 유 형		대응 생활형
동거형	침실분리형 (침실+ )화장실·욕실분리형	공동형
	(침실·화장실·욕실+)부엌분리형	
	(침실·화장실·욕실+부엌+) 식사실·거실분리형	
	침실분리형 (침실+ )화장실·욕실분리형	
인거형 (현관 분리)	(침실·화장실·욕실+) 부엌분리형	중간형
	(침실·화장실·욕실·부엌+) 식사실·거실분리형	
	내부연락통로가 없는 형	
	동일동 내 거주형 별동 거주형	
근거형	동일동 내 거주형 별동 거주형	분리형

출처 : 대한주택공사(1987), 3대가족형 공동주택개발 연구, p.176.

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세대가족의 주생활에 있어서 가족에 따른 주요한 차이점이 세대간 생활의 공동·분리 정도의 차이라고 할 때 3대가족의 생활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주택 형식 역시 세대간 생활공간의 공동·분리 정도에 따라 분류 유형화된다.

한편, 세대간 생활공간의 공동·분리 정도는 개개 주호 자체의 분리 정도와 생활에 필요한 세실들의 세대간 분리 정도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즉 세대별로 별개의 주호 내에서 생활하는가 혹은 동일 주호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가 하는 주호의 분리 정도와 침실, 화장실, 식사실 등의 생활공간을 어느 정도까지 세대별로 전용하는가 하는 세대별 전용공간 확보 정도로 3대 가족형 주택의 세대간 생활공간의 공동·분리 정도가 결정된다(표 5)

#### 4. 고령자와의 동거·근거의 지원

고령자와 그 가족의 다양한 거주욕구에 부응하는 관점에서 고령자세대와 자녀세대 등이 서로 교류·지원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동거·근거를 그 욕구에 부응하여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고령자 등과의 동거에 대응한 주택을 용자를 통하여 지원함과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있어 고령자세대와 그 자녀세대 등이 근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우대를 실시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III. 고령자의 동거실태와 주거의식

#### 1. 조사방법

고령자의 동거 실태와 주거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대상은 광주광역시에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자로 하였다. 이때 단독주택은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았으며,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추출하였다. 또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거주자를 동일한 비율로 선정하였다. 조사는 개별면접조사를 하였는데 206명이 유효한 응답을 해주었다. 조사기간은 2000년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백분율에 의하여 나타내었다.

#### 2. 거주상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가족형태, 주택점유형태, 주택종류, 거주기간, 생활형별 자녀와의 근접도, 자녀와의 동·별거 등에 대해서이다(표 6).

응답자는 「남자」가 42.2%, 「여자」는 57.8%이었다. 연령은 「60대」가 52.4%, 「70대」가 32.5%, 「80대 이상」이 15.1%로 분포되었다. 직업은 유직은 37.9%, 무직은 62.1%인데, 유직에서는 「상공서비스·자유업」이 13.6%, 「자영업·가족종업자」가 12.1%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본인+자녀+손자의 세대」가 48.1%로 가장 많았고, 「본인+자녀의 세대」가 28.6%로 그 다음이었다.

주택점유형태는 「자가」가 75.2%로 점유율이 높았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 종류는 「공동주택」이 55.8%로 단독주택보다 약간 많았다. 거주기간은 「10년 이상」이 된 경우가 37.4%로 가장 많았는데, 대체적으로 장기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활형별 자녀와의 근접도는 단독주택에서의 「부지내 별동」의 경우도 동거에 포함하여 보면 「동거」가 71.3%로 가장 많았으며, 「인거」는 6.3%, 「근거」는 7.3%, 「별거」는 13.6%로 나타났다. 인거는 동거와 별거와의 중간적인 형태인데, 앞으로도 노부모와의 인거, 동거 등 한국적 특색인 가족형태가 일정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후에 자녀와의 거주방식으로 자녀와의 동·별거의 관계에서는 「현재 동거하고 있으며 장래에도 동거한다」가 44.6%로 가장 높고, 이어서 「현재 동거하고 있으나 장래에는 별거한다」가 21.7%로 나타났다. 이것을 장래의 의향으로 보면, 「장래 동거」가 52.0%로 반 수가 넘지만, 「장래 별거」가 28.6%, 「장래에는 알 수 없다」가 19.4%로 나타나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은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표 6. 거주상태

구 분	항 목	f	%
성별	남 자	87	42.2
	여 자	119	57.8
연령	60대	108	52.4
	70대	67	32.5
	80대 이상	31	15.1
직 업	자영업·가족종업	25	12.1
	농림어업	17	8.3
	상공서비스·자유업	28	13.6
	상근의 피고용	3	1.5
	비상근의 피고용	5	2.4
	무 직	128	62.1
	독신세대	8	3.9
가족 형태	부부 2인세대	37	17.9
	본인+자녀의 세대	59	28.6
	본인+자녀+손자의 세대	99	48.1
	기 타	3	1.5
주택점유 형태	자 가	155	75.2
	차 가	51	24.8
주택 종류	단독주택	91	44.2
	공동주택	115	55.8
거주 기간	5년 이내	52	25.2
	10년 이내	77	37.4
	15년 이내	38	18.5
	20년 이내	21	10.2
	20년 이상	11	5.3
	태어나면서부터	7	3.4
	동거	138	66.9
생활형별 자녀와의 근접도	부지 내 별동	9	4.4
	인거	13	6.3
	10분 이내	15	7.3
	1시간 이내	8	3.9
	4시간 이내	12	5.8
	4시간 이상	8	3.9
	자녀 없음	3	1.5
자녀와의 동·별거	현재 동거하고 있으며 장래에도 동거한다	78	44.6
	현재 별거하고 있으나 장래에는 동거한다	13	7.4
	현재 별거하고 있으며 장래에도 별거한다	12	6.9
	현재 동거하고 있으나 장래에는 별거한다	38	21.7
	현재 동거하고 있으나 장래에는 알 수 없다	31	17.7
	현재 별거하고 있으나 장래에는 알 수 없다	3	1.7

#### 3. 주택에 관한 의식

고령자의 주택에 관한 의식으로 동거를 위한 주택계획, 노후 주택으로서 최초로 고려하는 주택, 노후 주택에 대한 불안, 노후 주택에 대한 불안 이유, 현 주택에

서의 불편한 점 등에 대해서이다(표 7).

동거를 위한 주택계획으로 「현재 이대로 충분하다」가 29.9%로 가장 높았으나, 다음에 「다른 주택을 구입 할 예정이다」가 17.7%, 「다른 주택을 빌릴 예정이다」가 15.0%로 나타났다. 동거를 위해서는 현재의 주택에 거주도 하지만 다른 주택으로도 이주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노후 주택으로서 최초로 고려하는 주택은 「고령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주택」이 34.9%로 가장 높았고, 「2세대 또는 3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이 33.5%로 그 다음이었다.

노후 주택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는,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가 48.1%로 높았으나, 「불안을 느낀다」가 42.7%로 거의 비슷하였다.

노후 주택에 대한 불안 이유로는 「고령자에게는 구조가 적합하지 않아서」가 22.3%로 가장 높았고, 다음에 「주택이 노후화되어서」가 21.4%로 높게 나타났다.

고령자가 현주택에서의 불편한 점으로는, 「현관 등에 단차이가 있어서 오르내리기가 불편하다」가 26.7%로 가장 높고, 이어서 「방, 욕실, 화장실의 입구 등에 단차이가 있다」가 25.2%, 「계단이 있어 오르내리기가 불편하다」가 11.2%로 나타났다. 단차이와 계단이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령기에도 자립적으로 안전·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의 조건정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령화사회의 진행에 대응하여 앞으로 주택의 표준적 시방이 될 수 있는 고령자대응주택스토의 형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배리어프리화, 고령자 입주의 확보(예를 들면 임대주택의 일정비율을 고령자에게 할당 등), 적정한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주택의 공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고령자대응형 주택을 건설·개선에 의하여 공급하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 IV. 결 론

오늘날 한국가족은 사회변동과 아울러 다양성을 엿보게 하지만, 아직도 3세대 가족인 노부모와 자녀세대로 구성하는 형태가 전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3대가족형 주택은 가족 구성원 상호의 세대가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고, 상대방의 생활에 간섭을 하지 않도록 현관을 2개, 부엌이나 욕실, 화장실 등을 별도로 하여 마치 공동주택과 같이 계획하여도 좋다. 3대가 하나의 가족처럼 생활하면서 현관이나 부엌, 거실 등 공용하는 스페이스를 많게 하는 방 배치도 적당하다. 그 중간으

표 7. 주택에 관한 의식

구 분	항 목	f	%
동거를 위한 주택계획	현재 이대로 충분하다	44	29.9
	현재 이대로는 불충분하지만 아는 것도 하지 않을 예정이다	18	12.2
	현재의 주택을 증개축할 예정이다	7	4.8
	다른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다	26	17.7
	다른 주택을 빌릴 예정이다	22	15.0
	자녀의 주택으로 이주할 예정이다	8	5.4
	기 타	1	0.7
노후주택으로서 최초로 고려하는 주택	모르겠다	21	14.3
	고령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주택	72	34.9
	보호 등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자용 주택	11	5.3
	2세대 또는 3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주택	69	33.5
	구매 등 생활에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28	13.6
	저가임의 임대주택	22	10.7
	기 타	1	0.5
노후 주택에 대한 불안	모르겠다	3	1.5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99	48.1
	불안을 느낀다	88	42.7
	모르겠다	19	9.2
	주택의 관리문제로	36	17.5
	주택이 노후화되어서	44	21.4
	전용침실이 없어서	17	8.3
노후 주택에 대한 불안이유	고령자에게는 구조가 적합하지 않아서	46	22.3
	가임이나 주택용자의 변제로	32	15.5
	자녀부부와 동거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어서	27	13.1
	기 타	4	1.9
	현관 등에 단차이가 있어 오르내리기가 불편하다	55	26.7
	방, 욕실, 화장실의 입구 등에 단차이가 있다	52	25.2
	계단이 있어 오르내리기가 불편하다	23	11.2
현 주택에서의 불편한 점*	복도나 계단이 미끄럽다	14	6.8
	복도나 계단에 난간이 없다	12	5.8
	화장실이 사용하기 불편하다(멀어, 좁다, 춥다, 손잡이가 없다 등)	19	9.2
	욕실이 사용하기 불편하다(춥다, 춥다, 어둡다, 손잡이가 없어 입욕하기가 힘들다 등)	19	9.2
	부엌이 사용하기 불편하다(싱크대의 높이가 적합하지 않다 등)	13	6.2
	창, 문의 개폐가 불편하다	12	5.8
	실내환경이 훨씬 더 사용에 배려되어 있지 않다	12	5.8
*: 종복응답	특별한 점이 없다	32	15.5

로 현관은 하나로 하더라도 욕실, 화장실, 부엌은 별도로 한 형식이나, 현관은 별도로 하더라도 공유부분이 많도록 하는 등 자신들이 어떻게 생활하면 좋은가에 따라 방 배치를 검토하고, 그 가정의 인간관계에 적합하고 생활하기 편리한 주거계획을 도모한다.

따라서 고령자가 안심하고 폐적한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환경정비가 추진되어야 하고, 고령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주거선택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심신의 허약화, 일상생활동작능력의 저하에 대응한 생활지원서비스나 보건의료, 진료의 확립에 의하여 거주의 계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차세대의 고령자주택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심신의 제약조건 증대에 대응하여 간단히 적응시켜 개조할 수 있는 건물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앞으로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안정적인 거주 확보가 곤란한 고령자에 대하여 공적 주택의 직접 공급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1. 대한주택공사(1987), 3대가족형 공동주택개발연구.
2. 이연숙(1993), 한국형 노인주택 연구, 경춘사.

3. 1998년사회통계조사보고서(1997), 통계청.
4. 林晚澤(1998), 주거환경계획, 技文堂.
5. 임만택·박경갑(2000), 高齡化社會에서 高齡者의 住居環境展望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聯合論文集, 2권 4호, 35-42.
6. 임만택·박경갑(2000), 3세대가족의 동거실태와 동거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11권 제1호, 13-23.
7. 임만택·박경갑(2001), 國內外 배리어프리化의 特性에 관한 比較研究, 大韓建築學會聯合論文集, 제3권 1호, 23-31.
8. 全明澈·姜淳柱(1992), 노인주거계획에 관한 이론적 접근, 大韓建築學會論文集, 제8권 제6호, 15-27.
9. 이가옥(2000), 노년기 삶의 질: 개념 및 지표 구성, 2000년도 세계노인의 날 기념 제6회 학술세미나, 성공회대학교.
10. 이동숙·윤충열(2002), 3세대 동거주택에 대한 부모·손자녀세대의 주의식, 한국주거학회지, 11권 1호.
11. 김정진·윤도근((1994), 3세대 동거주호의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권 2호.
12. 財團法人 高齡者住宅財團(1998), 人にやさしい建築・住宅推進協議會, 高齡社會の住まいと福祉デー タップ, 風土社.
13. 総務廳長官官房老人對策室(1990), 老人の生活と意識に関する國際比較調査.
14. 総務廳長官官房高齡社會對策室(1995), 高齡者の生活と意識に関する國際比較調査.
15. 住宅團地環境設計ノート編集委員會(1996), ハウシングキーワード200選, 日本住宅協會.
16. 森岡清美?望月嵩(1987), 新しい家族社會學(改訂版), 培風館.
17. 清水浩昭(1992), 高齡化社會と家族構造の地域性, 時潮社.
18. 湯川利和譯(Martin Valins)(1991), 高齡者住宅の企劃と設計, 鹿島出版會.